

한국음악학 그리고 서울대 동양음악연구소

宋芳松(한국예술종합학교)

1. 머리말: 동양음악연구소의 제1회 국내학술대회에 즈음하여

오늘 서울대 음대 동양음악연구소가 주최하는 제1회 국내학술대회의 기초발표표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운초(云初) 장사훈(張師勳) 박사님께서 서울대 음대 국악과의 재임시절 이 연구소를 1976년 설립한 이래로 동양음악연구소가 꾸준히 『민족음악학』이라는 학술지의 발간과 기타 학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음악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당(晩堂) 이혜구(李惠求) 선생님과 운초 선생님을 위시한 한국음악학의 제1세대 이후 제2세대가 동양음악연구소에서 전개한 여러 업적들도 기억해야 마땅하다. 예컨대 서울대출판부에서 나온 『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1998) 및 1998년 이래로 『민족음악학』을 계승한 국영문 학술지 『동양음악』의 출간을 한국음악학의 제2세대가 이룬 업적으로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전개한 동양음악연구소의 학술활동에 참가하여 이 연구소가 21세기 한국음악학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본인의 학술활동을 회고하면서 잠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인의 학술활동이 비록 개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동양음악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기초발표의 제목을 “한국음악학 그리고 서울대 동양음악연구소”라고 정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2. 한국음악학과 동양음악연구소

외국유학에서 귀국한 이래로 필자가 한국음악학의 발전을 위해서 학술연구기관이 꼭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이미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음악학의 명확한 개념과 정의 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중략)… 둘째로 한국음악학의 연구 기반 및 풍토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정리작업이 필요하다. …(중략)… 셋째로 강조되어야 할 일은 충실한 학문적 비판력의 배양이다. …(중략)… 끝으로 강조되어야 할 일은 한국음악학 관계논문 서술에 있어서 명료성 또는 정확성이 필요 조건이라는 것이다.¹

위에서 지적한 네 가지의 당면과제를 개인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본인이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있지만, 개인적 능력의 한계성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당면과제들이 동양음악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평소에 생각하게 됐으며, 오늘의 기초발표를 통해서 필자의 평소 생각을 여러분 앞에서 발표하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음악학 관련 당면과제 중의 첫째·셋째·넷째 과제를 위한 필자의 글들이 이미 세 권의 평론집²과 여러 논문집³에 출간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만 둘째 당면과제가 개인 차원의 연구활동을 넘어 동양음악연구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여기서 잠시 상론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문적 비판력 배양 및 학술논문의 정확성과 명료성 관련 셋째·넷째 당면과제는 필자가 그동안 음악연구서의 서평 및 음반평 또는 다른 평론의 형태로 발표해 왔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앞서 지적된 당면과제 중에서 동양음악연구소가 앞으로 고려해보도록 권고하고 싶은 과제는 바로 한국음악학의 연구기반조성과 관

¹ 宋芳松, 『韓國音樂史研究』(경산: 영남대출판부, 1982), 27-35쪽.

² 宋芳松, 『韓國音樂學序說』(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9); 『한국음악학의 방향』(서울: 도서출판 예술, 1998); 『한국음악학의 현단계』(서울: 민속원, 2002).

³ 宋芳松, 『韓國音樂史研究』(1981); 『韓國音樂史論攷』(경산: 영남대출판부, 1995); 『韓國音樂史論叢』(서울: 민속원, 1999); 『朝鮮朝音樂史研究』(서울: 민속원, 2001).

⁴ 宋芳松, 『韓國音樂史研究』의 부록 1; 『韓國音樂學序說』의 제3부; 『한국음악학의 방향』의 제3편; 『韓國音樂史論叢』의 부록; 『朝鮮朝音樂史研究』의 제3편에 포함된 서평 및 음반평 참조.

련된 것이다.

학문적 연구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둘째 과제의 수행을 위한 본인의 노력은 크게 세 갈래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것은 1) 한국음악학논저해제, 2) 원전자료의 색인 작업, 3) 원서의 한글번역이다. 이 세 가지는 외국유학에서 서양의 음악사학(historical musicology) 및 종족음악학(ethnomusicology)을 필자가 공부한 결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귀국 후 실천을 통해서 한국음악학의 발전을 시도했던 것이다.

한국음악학의 연구성과에 대한 해제작업은 그동안 출간된 세 권의 단행본으로 결실을 맺었고,⁵ 매년 1년 단위로 여러 음악학술지에 발표해 오고 있다.⁶ 영남대 시절(1980~1998) 한국음악사학회의 음악사료연구회(音樂史料研究會)를 중심으로 전개한 음악사료의 번역성과는 최근 민속원에서 매년 단행본으로 출간되고 있으며,⁷ 전통예술원의 출범과 함께 지금까지 운영하는 한문강독회(漢文講讀會)의 번역성과도 해마다 단행본으로 출간되고 있다.⁸

얼마전 필자의 제자 중 이정희(李丁希)양이 서울대의 박사과정에 입학했다고 인사 차 본인의 연구실에 들렀을 때, 필자는 이양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한 바가 있다. 즉 전통예술원의 전문사(석사)과정 때 참여했던 한문강독회와 같은 공부모임을 서울대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재학생을 중심으로 만들어 동양음악연구소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악과의 전임교수에게 부탁해 보라는 것이었다. 만약 동양음악

⁵ Song Bang-song,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Korean Music* (Providence, R. I.: Brown University, Asian Music Publications, 1971);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宋芳松·金聖惠·高正潤 공저, 『韓國音樂學論著解題 II』(서울: 민속원, 2000).

⁶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0-1989(I, II),” 『韓國音樂史學報』(경산: 한국음악사학회, 1992), 제8집 및 제9집;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0-1989(III),” 『韓國音樂史學報』, 제10집;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0-1989(IV, V),” 『韓國音樂史學報』, 제12집 및 제13집;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90年度,” 『音樂論壇』(서울: 한양대 음악연구소, 1992), 제6집; “同: 1991年度,” 『音樂論壇』(1993), 제7집; “同: 1992年度,” 『音樂論壇』(1994), 제8집; “同: 1993年度,” 『音樂論壇』(1995), 제9집; “同: 1994年度,” 『韓國音樂史學報』(1997) 제18집 및 제19집; “同: 1995年度,” 『音樂論壇』(1998), 제12집; “同: 1996年度,” 『음악과 문화』(대구: 세계음악학회, 2000), 창간호; “同: 1997年度,” 『音樂論壇』(1999), 제13집; “同: 1998年度,” 『音樂論壇』(2000), 제14집; “同: 1999年度,” 『音樂論壇』(2001), 제15집. “韓國音樂學論著解題: 2000年度”는 현재 전통예술원 전문사과정의 공연예술사료 강좌에서 제자들과 함께 정리작업 및 주제색인을 마린 중인데, 연말에 『音樂論壇』(2002), 제16집에 발표 예정.

⁷ 宋芳松·高芳子 외, 『國譯英祖朝甲子進宴儀軌』(서울: 민속원, 1998); 『國譯豐亨都監儀軌』(서울: 민속원, 1999); 『國譯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서울: 민속원, 2000); 宋芳松·朴貞連 외, 『國譯肅宗朝己亥進宴儀軌』(서울: 민속원, 2001).

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 음악사료강독회 편, 『조선후기 문집의 음악사료』(서울: 계문사, 2000); 『高宗辛丑進宴儀軌』 卷1과 卷2(서울: 민속원, 2001) 및 卷3(2002).

연구소가 규장각(奎章閣)이나 장서각(藏書閣)에 전하는 새 음악사료의 번역작업을 전개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한국음악학의 발전은 시간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가령 우에무라 유키오(植村幸生) 교수가 오늘 발표하려는 논문에서 인용한 『선창일기』(宣廳日記)와 같은 규장각 소장본의 원전이 동양음악연구소의 한문강독회에 의해서 한글로 번역된다면, 내취(內吹) 관련 연구가 한국음악학의 차세대들에 의해서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예술원 소속 한문강독회의 첫 번째 번역본인 『조선 후기 문집의 음악사료』(2000)가 권도희(權度希) 강사의 발표논문에서 인용된 것을 보고서 필자는 번역성과의 보람을 다시금 실감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음악학의 발전을 위하여 동양음악연구소가 고려해볼 사항 중 번역작업을 색인작업과 관련하여 필자의 경우를 하나의 실례로 들려고 한다.

1984년에 출간된 『韓國音樂通史』의 개정판을 준비하기 위해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음악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색인작업의 중요성은 그동안 출간된 필자의 논문집에 포함된 수많은 색인들이 입증해준다. 예컨대, 고대 및 중세음악사연구를 위한 색인성과⁹가 그 사례이다. 그리고 기타 근현대음악사연구와 관련된 자료의 주제색인¹⁰ 및 음악학술지의 주제색인¹¹도 본인의 한국음악사연구를 위하여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1985년부터 필자는 조선왕조의 음악사연구를 위하여 『조선왕조실록』의 음악기사 색인작업에 들어가¹² 1991년 국립국악원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하였

⁹ 宋芳松, 『韓國音樂史研究』, 278-282쪽(『三國史記』樂志 索引) 및 319-343쪽(『樂學軌範』索引); 『韓國古代音樂史研究』(서울: 일지사, 1985), 제3편 韓國音樂史料 索引(『古事類苑』의 韓國音樂記事 索引, 『三國史節要』音樂記事 索引, 陳暘『樂書』의 細目 索引, 考古學資料에 나타난 樂器 索引, 『高麗史』의 音樂記事 索引, 『高麗圖經』의 音樂記事 索引, 『東國李相國集』의 音樂記事 索引, 『六國史』의 韓國音樂記事 索引, 『經國大典』音樂關係事項 索引, 壬辰亂 以前 音樂史料의 樂曲 索引); 『高麗音樂史研究』(서울: 일지사, 1988), 제3편 韓國音樂史料 索引(『高麗名賢集』의 音樂記事 索引, 壬辰亂 以前 音樂史料의 樂調 索引, 『大東野乘』의 音樂記事 索引, 『增補文獻備考』의 音樂記事 索引).

¹⁰ 宋芳松, “『朝鮮美人寶鑑』 주제색인,” 『寬齋成慶麟先生九句記念國樂學論叢』(서울: 국악고등학교동창회, 2000); “新民謠의 주제색인: 金占道 편, 『韓國新民謠大典』,” 『음악과 문화』(2001), 제6호.

¹¹ 宋芳松, “『韓國音樂史學報』의 主題索引,” 『韓國音樂史學報』(1994), 제12집; “『낭만음악』 창간5주년기념 주제색인,” 『낭만음악』(서울: 낭만음악사, 1993), 통권20호.

¹² 宋芳松, “『朝鮮王朝實錄』 音樂記事 索引(I),” 『民族文化論叢』(경산: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6), 제8집; “『朝鮮王朝實錄』 音樂記事 索引(II),” 『韓國音樂研究』(서울: 한국국악학회, 1986), 제15/16집; “『朝鮮王朝實錄』 音樂記事 索引(III),” 『人文研究』(경산: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7), 제9집; “『朝鮮王朝實錄』 音樂記事 索引(IV),” 『音樂論壇』(1988), 제4집; “『朝鮮王朝實錄』 音樂記事 索引(V, VI),” 『韓國音樂史學報』(1990), 제5집 및 제6집; “『朝鮮王朝實錄』 音樂記事 索引(VII),” 『國樂院論文集』(서울: 국립국악원, 1990), 제2집; “『朝鮮王朝實錄』 音樂記事

다. 이 『朝鮮王朝實錄音樂記事總索引』에 의거하여 필자는 수십편의 논문을 마련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필자의 제자들도 석사논문을 작성할 때 그 색인집을 활용하였고, 조선시대음악사를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그 색인집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근대음악사연구를 위하여 근래 필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 펴낸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및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의 색인 작업을 전문가(석사)과정의 제자들과 함께 2000년의 시작과 함께 전개하였다.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의 일부가 이미 음악학술지에 발표되었고,¹³ 경성방송국 국악방송자료의 색인집¹⁴도 곧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이런 색인작업의 성과는 필자의 제자가 최근에 취득한 박사학위논문¹⁵ 및 필자의 여러 논문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밑바탕이 되었고, 그 결과로 필자의 『한국근대음악사연구』¹⁶라는 단행본이 올해 연말에 나올 수 있게 됐음을 참고로 밝혀두고자 한다.

어느 한 나라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산업의 기간사업 중 도로와 교량 및 항만 건설이 필수적이다. 이렇듯 색인작업이나 음악사료의 번역작업은 한국음악학이라는 학문의 기간사업에 해당한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동양음악연구소가 21세

索引(VIII), 『音樂論壇』(1991), 제5집.

¹³ 宋芳松·宋惠園, “콜럼비아 유성기음반 색인(1 및 2),” 『韓國音樂史學報』(2001), 제26집 및 제27집; 송방송·임현숙·송혜원, “빅타임반 주제색인,” 『韓國音盤學』(서울: 한국고음반연구회, 2001), 제11호. 홍보한 콜럼비아 유성기음반 색인은 『韓國音盤學』(2002), 제12호에 발표 예정.

¹⁴ 2000년 6월 20일 확정된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서울: 민속원, 2000)의 연도별 색인작업의 분담시기 및 분담자의 이름은 다음과 같음. 송방송(1926~1930 및 1944~1945), 원혜진(1931~1933), 송상혁(1934~1935), 정서은(1936~1938), 최문석(1939~1940), 김종성(1941~1943), 김명주(李王職雅樂部肄習會演奏錄), 여름방학 중에 항목선정 및 입력된 항목들을 필자가 종합하여 2000년도 겨울방학 중에 정리했는데, 현재 2002년말의 출간목표로 송상혁양이 수정작업 중임.

¹⁵ 鄭永進, “日帝強占期 傳統音樂의 展開樣相 研究”(부산: 경성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¹⁶ 宋芳松, 『韓國近代音樂史研究』에 포함될 논문은 제1편 한국근대음악의 역사적 접근: 1. 近代音樂史의 總體的 視覺, 2. 韓國近代音樂史의 한 樣相, 3. 日帝前期의 音樂史研究를 위한 試論, 4. 現行 十二雜歌와 短歌의 歷史的 照明; 제2편 한국근대음악사의 이모저모: 1. 日帝下 五名唱에 의한 판소리의 傳承樣相, 2. 1920年代 방송된 傳統音樂의 公演樣相, 3. 日帝初期 散調 放送의 한 樣相, 4. 新民謠歌手의 音樂社會史的 照明, 5. 日帝初期 傳統音樂의 갈래 用語論; 제3편 일제강점기 판소리 명창론: 1. 金昌龍 명창의 음악활동에 대한 文獻的 點檢, 2. 日帝強占期 李東伯 명창론, 3. 宋萬甲 명창의 음악활동 小考, 4. 일제때 여류명창 金素姬의 공연활동; 제4편 일제시대 전통기악인의 공연양상: 1. 거문고명인 白樂俊과 가야금명인 丁南希, 2. 1930年代 藝妓 金雲仙의 公演活動, 3. 젓대명인 朴鍾基의 음악활동, 4. 京城放送局에 출연한 藝妓들의 공연활동.

기 한국음악학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 요람의 구실을 담당하도록 권고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3. 맺는말: 21세기 동양음악연구소의 위상을 위하여

1959년 만당 선생님과 운초 선생님의 의해서 설립된 서울대 음대 국악과는 20세기 후반기 한국음악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었던 근거지였고, 또한 타대학교의 국악과 설립에 결정적인 원동력이었음은 물론이다. 서울대 국악과 출신의 다음 세대들이 왕성한 학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음악학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듯 서울대 음대 국악과가 20세기 후반기의 한국음악학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시키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듯이, 동양음악연구소가 21세기 한국음악학의 발전에 새 지평을 열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은 필자만의 희망사항이 아닐 것이다.

옛말처럼 태산의 정상 정복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듯이, 학문 발전의 기반조성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필자가 공부하면서 깨달았다. 이제부터라도 학문의 기간사업을 동양음악연구소가 하나씩 기획하여 한국음악학의 발전에 새 지평을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한국음악학 제1세대의 업적을 이은 지금의 제2세대들이 제3·4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학문의 새로운 전통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21세기 한국음악학의 발전은 현재의 음악학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연구활동을 전개시켜 나가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러므로 2002년부터 동양음악연구소의 소장직을 맡은 오용록 교수의 생각이 한국음악학의 발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동안 동양음악연구소가 개최해 온 국제음악학술대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국내학술대회의 개최도 중요하다. 현 연구소장의 생각이 주목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런 새 발상 때문이다. 앞으로 동양음악연구소가 시도할 시대별 또는 주제별 국내학술대회의 개최도 그렇고, 또한 학문의 기초작업을 위한 학술적 노력이 21세기 동양음악연구소의 위상과 역할을 한국음악학계에서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요컨대, 앞서 필자가 거론한 학문의 기초작업에 대하여 동양음악연구소가 하나씩 실천에 옮길 때, 21세기 한국음악학의 발전은 기대해 볼만 하다고 필자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앞으로 동양음악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Korean Musicology and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ong Bang-song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ranslated by Kim Jin-Woo (Seoul National University)

1. Introduction: Holding the First Domestic Conference of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Today, I am honored to address the keynote speech for the 1st Domestic Conference held by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It is well known that since Dr. Chang Sa-hun 張師勛 (pen name, Unch'ŏ 云初) established the Institute in 1976 while he was a professor at the Korean Music Department of SNU, the Institute has continuously published the journal *Minjok ūmakhak* 『民族音樂學』 (literally, National Musicology; *Journal of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and carried out other academic activities, which all grea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musicology. The various achievements accomplished by the second-generation Korean music scholars following the first-generation scholars of Korean musicology, Dr. Lee Hye-ku [Yi Hye-gu] 李惠求 (pen name, Mandang 晩堂) and Dr. Chang, should be acknowledged. For example,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the second generations of Korean musicology are the publication of *Chosŏnjo kungjung ūiryewa ūmak* 『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 (1998) or *The Music and Court Rituals of the Chosŏn Dynasty*, and the Korean and English bilingual journal *Tongyang ūmak* 『동양음악』 — the successor of *Minjok ūmakhak* — published since 1998.

Recollecting my academic activities, I would like to ponder upon the matter of what the Institute should accomplish and how it should carry it out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musicology of the twenty-first century. Even though my academic activities are personal, I thought that they may be references for the

growth of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This is why I have decided on the title “Korean Musicology and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the keynote address.

2. Korean Musicology and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Since I returned to Korea upon completion of my study, I have written articles on the factors that academic research institutes should consider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musicology. The following is an excerpt from one of my monographs.

Firstly, above all presenting a clear concept and definition of Korean musicology is urgent ... Secondly, compiling the fundamental resources for creating the foundation of research and academic environment of Korean musicology is needed ... The third point, which should be emphasized, is the growth of sincere academic criticism ... The final point to emphasize is that clarity and accuracy in writing theses on Korean musicology is a requirement.¹

I have put efforts to achieve the four urgent tasks mentioned above for myself. However, I can not help realizing the limit of one’s capacity. Because I have always thought that these immediate tasks should be carried out by research institutes such as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I would like to express my idea that I have always had in today’s keynote address.

Among the factors, since the first three ones have already been discussed in my writings published in three collections of critical essays² and many other collections of treatises,³ I do not intend to reiterate them here. However, I would like to talk in detail

¹ Song Bang-song [Song Pang-song] 宋芳松, *Han’guk ūmaksa yŏn’gu* 『韓國音樂史研究』 (Kyŏngsan: Yŏngnamdae ch’ulp’anbu, 1982), pp. 27-35.

² Song Bang-song, *Han’guk ūmakhak sŏsŏl* 『韓國音樂學序說』 (Seoul: Segwang ūmak ch’ulp’ansa, 1989); *Han’guk ūmakhak ūi panghyang* 『한국음악학의 방향』 (Seoul: Tosŏch’ulp’an Yesol, 1998); *Han’guk ūmakhak ūi hyŏndan’gye* 『한국음악학의 현단계』 (Seoul: Minsogwŏn, 2002).

³ Song Bang-song, *Han’guk ūmaksa yŏn’gu* 『韓國音樂史研究』 (1981); *Han’guk kodae ūmaksa yŏn’gu* 『韓國古代音樂史研究』 (Seoul: Ilchisa, 1985); *Koryŏ ūmaksa yŏn’gu* 『高麗音樂史研究』 (Seoul: Ichisa, 1988); *Han’guk ūmaksa non’go* 『韓國音樂史論攷』 (Kyŏngsan: Yŏngnamdae ch’ulp’anbu, 1995);

about the second task because I think it needs to be accomplished by an institute such as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rather than by an individual. I have already written much about the development of academic criticism and about the importance of clarity and accuracy in writing academic theses, which were the third and fourth tasks respectively, in various book and recording reviews and other reviews.⁴ Therefore, among the immediate tasks mentioned above, the suggested task for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is the formation of the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musicology.

My efforts to carry out the second task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he foundation of academic research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of work: 1) producing annotated bibliographies of Korean musicology; 2) indexing original texts of primary sources; and 3) translating English works into Korean language. Because these were recognized through my studies of Western historical musicology and ethnomusicology, I strived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musicology after I returned to Korea.

Producing annotated bibliographies of works on Korean musicology has born fruit through three published monographs,⁵ and afterwards, the task has been continued by my publishing articles in music journals annually.⁶ The translations of historical

Han'guk ūmaksa nonch'ong 『韓國音樂史論叢』 (Seoul: Minsogwŏn, 1999); *Chosŏnjo ūmaksa yŏn'gu* 『朝鮮朝音樂史研究』 (Seoul: Minsogwŏn, 2001).

⁴ Refer to the book and recording reviews of the followings: Song Bang-song, *Han'guk ūmaksa yŏn'gu* 『韓國音樂史研究』 Appendix I; *Han'guk ūmakhak sŏsŏl* 『韓國音樂學序說』 Section 3; *Han'guk ūmakhak ūi panghyang* 『한국음악학의 방향』 Section 3; Appendix of *Han'guk ūmaksa nonch'ong* 『韓國音樂史論叢』; and *Chosŏnjo ūmaksa yŏn'gu* 『朝鮮朝音樂史研究』 Section 3.

⁵ Song Bang-song,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Korean Music* (Providence, R. I.: Brown University, Asian Music Publications, 1971); Song Bang-song, *Han'guk ūmakhak nonjŏ haeje* 『韓國音樂學論著解題』 (Sŏngnam: Han'guk chŏngsin munhwa yŏn'guwŏn, 1981); Song Bang-song, Kim Sŏng-hye 金聖惠, and Ko Chŏng-yun 高正潤, *Han'guk ūmakhak nonjŏ haeje II* 『韓國音樂學論著解題 II』 (Seoul: Minsogwŏn, 2000).

⁶ Song Bang-song, "Han'guk ūmakhak nonjŏ haeje: 1980-1989 (I, II)"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0-1989 (I, II), *Han'guk ūmak sahakpo* 『韓國音樂史學報』 (Journal of the Society for Korean Historico-Musicology) (Kyŏngsan: Han'guk ūmak sahakhoe, 1992), Vol. 8 and Vol. 9; "Han'guk ūmakhak nonjŏ haeje: 1980-1989 (I, II)," *Han'guk ūmak sahakpo*, Vol. 10; "Han'guk ūmakhak nonjŏ haeje: 1980-1989 (IV, V)," *Han'guk ūmak sahakpo*, Vols. 12 and 13; "Han'guk ūmakhak nonjŏ haeje: 1990nyŏndo," *Ūmak nondan* 『音樂論壇』 (The Music Forum) (Seoul: Hanyangdae ūmak yŏn'guso, 1992), Vol. 6; "Han'guk ūmakhak nonjŏ haeje: 1991nyŏndo," *Ūmak nondan* (1993), Vol. 7; "Han'guk ūmakhak nonjŏ

music resources, carried out by the *Ŭmak saryo yŏn'guhoe* 音樂史料研究會 of *Han'guk ūmaksakhakhoe* 韓國音樂史學會 (the Society for Korean Historico-Musicology) during the period of Yŏngnam University (1980~1998), have been published by Minsogwŏn 민속원 annually.⁷ Translations done by the *Ŭmak saryo kangdokhoe* 音樂史料講讀會, which exist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Chŏnt'ong yesurwŏn* 傳統藝術院 (School of Korean Traditional Arts), have been published in a monograph annually.⁸

A few days ago when a student of mine Yi Chŏng-hŭi 李丁希, who entered the doctoral program of SNU, visited me at my office, I told her to tell the professors there to form a study group, comprised of graduate students in the master's and the doctoral programs, similar to the *Ŭmak saryo kangdokhoe* 音樂史料講讀會, where she participated during her years at the specialist course (master's course) of School of Korean Traditional Arts (*Chŏnt'ong Yesurwŏn* 傳統藝術院). I thought that if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could carry out the task of translating the historical music resources of *Kyujanggak* 奎章閣 or *Changsŏgak* 藏書閣, the development of Korean musicology is a matter of time.

For example, *Sŏnchŏng ilgi* 『宣廳日記』, of which the original text is preserved at the *Kyujanggak* Collection of SNU, is quoted in today's article by professor Uemura Yukio

haeje: 1992nyŏndo, "Ŭmak nondan (1994), Vol. 8; "Han'guk ūmakhak nonjŏ haeje: 1993nyŏndo, "Ŭmak nondan (1995), Vol. 9; "Han'guk ūmakhak nonjŏ haeje: 1994nyŏndo, "Han'guk ūmak sahakpo (1997) Vols. 18 and 19; "Han'guk ūmakhak nonjŏ haeje: 1995nyŏndo, "Ŭmak nondan (1998), Vol. 12; "Han'guk ūmakhak nonjŏ haeje: 1996nyŏndo, "Ŭmak kwa munhwa 『음악과 문화』 (Music and Culture) (Taegu: Segye ūmak hakhoe, 2000), Vol. 1; "Han'guk ūmakhak nonjŏ haeje: 1997nyŏndo, "Ŭmak nondan (1999), Vol. 13; "Han'guk ūmakhak nonjŏ haeje: 1998nyŏndo, "Ŭmak nondan (2000), Vol. 14; "Han'guk ūmakhak nonjŏ haeje: 1999nyŏndo, "Ŭmak nondan (2001), Vol. 15. I am currently preparing "Han'guk ūmakhak nonjŏ haeje: 2000nyŏndo" with my students in the course titled Historical Resources of Performing Arts, a master's level course of the School of Korean Traditional Arts. It will be published in *Ŭmak nondan* (2002), Vol. 16 at the end of this year.

⁷ Song Bang-song, Ko Pang-cha 高芳子, et al. *Kugyŏk Yŏngjojo kapcha chinyŏn ūigwe* 『國譯英祖朝甲子進宴儀軌』 (Seoul: Minsogwŏn, 1998); *Kugyŏk P'ungjŏng togam ūigwe* 『國譯豐呈都監儀軌』 (Seoul: Minsogwŏn, 1999); *Kugyŏk Yinjŏngjŏn akki chosŏngchŏng ūigwe* 『國譯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 (Seoul: Minsogwŏn, 2000); and Song Bang-song and Pak Chŏng-yŏn, *Kugyŏk Sukchongjo kihae chinyŏn ūigwe* 『國譯肅宗朝己亥進宴儀軌』 (Seoul: Minsogwŏn, 2001).

⁸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chool of Korean Traditional Arts, Department of Traditional Arts Theory, *Ŭmaksaryo kangdokhoe* 音樂史料講讀會 ed., *Chosŏn hugi munjip ūi ūmak saryo* (Seoul: Kyemunsa, 2000); *Kojong Sinch'uk chinyŏn ūigwe* 『高宗辛丑進宴儀軌』 (Seoul: Minsogwŏn, 2001), Vols. 1 and 2; Vol. 3 (2002).

植村幸生. If the *Sŏnch'ŏng ilgi* is translated by the *Hanmun kangdokhoe* 漢文講讀會 of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study related to *naech'wi* 內吹 (percussion and string and wind ensemble of the court) will be deepened by scholars of the next generation. I felt rewarded when Kwon Do-hee's 權度希 [Kwŏn To-hŭi's] article cited *Chosŏnhugi munjip ūi ūmak saryo* 『조선후기 문집의 음악사료』 (2000), which was the first translation published by the *Ūmak saryo kangdokhoe* of the School of Korean Traditional Arts. Next, I want to take my work as an example for discussing indexing, which should be considered by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musicology.

The importance of index has been proved by the numerous indices contained in a number of essay collections, which I wrote, during the process of studying Korean music history from the ancient times through the modern times to prepare for the publication of the second edition of *Han'guk ūmak t'ongsa* 『韓國音樂通史』 (1984). The indices for the study of ancient and medieval Korean music history published in various works of mine are the examples.⁹ Moreover, the subject index of modern and contemporary music history¹⁰ and that of music journals¹¹ were published for my

⁹ Song Bang-song, *Han'guk ūmaksa yŏn'gu* 『韓國音樂史研究』, pp. 278-282 (*Samguk sagi* 『三國史記』 *akchi* 樂志 Index) and pp. 319-343 (*Akhak kwebŏm* 『樂學軌範』 Index); *Han'guk kodae ūmaksa yŏn'gu* 『韓國古代音樂史研究』, Section 3 *Han'guk ūmak saryo saegin* 韓國音樂史料索引 Index (the index of the Korean music articles of *Kosa yuwan* (Koji ryuen in Japanese) 『古事類苑』, the index of the music articles of *Samguksa chŏryo* 『三國史節要』, the index of the details of *Aksŏ* (Yŭeh-shu in Chinese) 『樂書』 by Chin Yang (Ch'en Yang) 陳暘, the index of the musical instruments in archeological resources, the index of the music articles of *Koryŏsa* 『高麗史』, the index of the music articles of *Koryŏ togyŏng* 『高麗圖經』, the index of the music articles of *Tongguk isang kukchip* 『東國李相國集』, the index of the Korean music articles of *Yukkuksa* 『六國史』, the index of music related items of *Kyŏngguk taejŏn* 『經國大典』, the index of the musical pieces in the music historical resources before the Hideyoshi Invasion in 1592); *Koryŏ ūmaksa yŏn'gu* 『高麗音樂史研究』, Section 3 *Han'guk ūmak saryo saegin* 韓國音樂史料索引 Index (the index of music articles of *Koryŏ myŏnghyŏnjip* 『高麗名賢集』, the index of the musical modes in the music historical resources before the Hideyoshi Invasion in 1592, the index of the music articles of *Taedong yasŏng* 『大東野乘』, the index of the music accounts of *Chŭngbo munhŏn pigo* 『增補文獻備考』).

¹⁰ Song Bang-song, "*Chosŏn miin pogam chuje saegin*" 『朝鮮美人寶鑑』主題索引, *Kwanje Sŏng Kyŏng-nin sŏnsaeng kusun kinyŏm kugakhak nonch'ong* 『寬齋成慶麟先生九旬記念國樂學論叢』 (Seoul: Kugak kodŭng hakkyo tongch'anghoe, 2000); "*Sinminyo ūi chuje saegin*: Kim Chŏm-do p'yŏn, *Han'guk Sinminyo taejŏn*" 新民謠의 主題索引: 金占道編 『韓國新民謠大典』 *Ūmak kwa munhwa* (2001), Vol. 6.

research of Korean music history. Also, I began indexing the music accounts of the *Chosŏn wangjo sillok* 『朝鮮王朝實錄』 for the study of Chosŏn-period music history, and the result¹² was published by the *Kungnip kugagwŏn* 國立國樂院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Based on the *Chosŏn wangjo sillok ūmak kisa ch'ongsaegin* 『朝鮮王朝實錄音樂記事總索引』 I was able to write many articles, my students used it when they wrote their master's theses, and as far as I know, the indices assisted younger scholars who study Chosŏn-period music history.

Since 2000, I and my master's students began indexing the *Kyŏngsŏng pangsongguk kugak pangsonggok mongnok*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and *Han'guk yusŏnggi ūmban ch'ongmongnok*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 published by the *Han'guk chŏngsin munhwa yŏn'guwŏn* 韓國精神文化研究院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for the study of modern Korean music history. Part of the index of the *Han'guk yusŏnggi ūmban ch'ongmongnok* was published in music journals¹³ and the index of the Korean music broadcast resources of the Kyŏngsŏng Broadcasting Station¹⁴ will soon be published

¹¹ Song Bang-song, "Han'guk ūmak sahakpo ūi chuje saegin" 『韓國音樂史學報』의 主題索引, *Han'guk ūmak sahakpo* 『韓國音樂史學報』(1994), Vol. 12; "Nangman ūmak ch'anggan 5chunyon kinyŏm chuje saegin" 『낭만음악』 창간5주년기념 주제 색인, *Nangman ūmak* 『낭만음악』 (Seoul: Nangman ūmaks, 1993) No. 20.

¹² Song Bang-song, "Chosŏn wangjo sillok ūmak kisa saegin (I)" 『朝鮮王朝實錄』 音樂記事 索引(1), *Minjok munhwa nonch'ong* 『民族文化論叢』 (Kyŏngsan: Yŏngnamdae minjok munhwa yŏn'guso, 1986), Vol. 8; "Chosŏn wangjo sillok ūmak kisa saegin (II)," *Han'guk ūmak yŏn'gu* 『韓國音樂研究』(Seoul: Han'guk kugak hakhoe, 1986), Vol. 15/16; "Chosŏn wangjo sillok ūmak kisa saegin (III)," *Inmun yŏn'gu* 『人文研究』 (Kyŏngsan: Yŏngnamdae Inmun kwahak yŏn'guso, 1987), Vol. 9; "Chosŏn wangjo sillok ūmak kisa saegin (IV)," *Ūmak nondan* (1988), Vol. 4; "Chosŏn wangjo sillok ūmak kisa saegin (V, VI)," *Han'guk ūmak sahakpo* (1990), Vol. 5 and Vol. 6; "Chosŏn wangjo sillok ūmak kisa saegin (VII)," *Kugagwŏn nonmunjip* 『國樂院論文集』 (Seoul: Kungnip kugagwŏn, 1990), Vol. 2; "Chosŏn wangjo sillok ūmak kisa saegin (VIII)," *Ūmak nondan* (1991), Vol. 5.

¹³ Song Bang-song and Song Hye-wŏn 宋惠園, "Columbia yusŏnggi ūmban saegin (1 and 2)" 컬럼비아 유성기음반 색인, *Han'guk ūmak sahakpo* (2001), Vols. 26 and 27; Song Bang-song, Im Hyŏn-suk 任賢淑, and Song Hye-wŏn, "Victor ūmban chuje saegin" 빅타음반 주제 색인, *Han'guk ūmbanhak* 『韓國音盤學』 (Korean Discography) (Seoul: Han'guk kŏmban yŏn'guhoe, 2001), Vol. 11. The expanded index of the Columbia phonograph records will be published in *Han'guk ūmbanhak* (2002), Vol. 12.

¹⁴ Those responsible for indexing the *Kyŏngsŏng pangsongguk kugak pangsonggok mongnok*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Seoul: Minsogwŏn, 2000), decided on June 6, 2000, by different periods are as follows: Song Bang-song (1926~1930 and 1944~1945), Wŏn Hye-jin 元惠眞 (1931~1933), Song Sang-hyŏk 宋相赫 (1934~1935), Chŏng Sŏ-ŭn 鄭誦恩 (1936~1938), Ch'oe Mun-sŏk 崔文碩 (1939~1940), Kim Chong-sŏng 金鍾成 (1941~1943), and Kim Myŏng-ju 金明珠 (*Yiwangjik aakpu isŭphoe yŏnjurok*, 李王職

as a monograph. These publications of indices became a foundation for the doctoral dissertation¹⁵ of a student of mine and for my articles which made the publication of *Han'guk kŭndae ūmaksa yŏn'gu* 『韓國近代音樂史研究』¹⁶ — an essay collection that will be published by the end of this year — possible.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 nation, among the key industries the establishment of roads, bridges, and harbors are necessary. I believe that indexing and translating historical music resources are the key industries in the field of Korean musicology. This is why I suggest that the Asian Music Institute take the role of an academic cradle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musicology.

雅樂部肄習會演奏錄, the performance record of the *Isūphoe* 肄習會 of the Royal Music Institute of Yi Dynasty). During winter vacation in 2000, I have rearranged the selected and arranged items that was completed during summer vacation. Presently, Song Sang-hyök is proofreading the work planned to be published at the end of 2002.

¹⁵ Chŏng Yŏng-jin 鄭永進, "Ilche kangjŏmgi chŏnt'ong ūmak ūi chŏn'gae yangsang yŏn'gu" 日帝強占期 傳統音樂의 展開樣相 研究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Music in Japanese Colonial Period) (Pusan: Kyŏngsŏ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diss., 2002).

¹⁶ The titles of each chapter and the headings of the chapter of my monograph *Han'guk kŭndae ūmaksa yŏn'gu* 『韓國近代音樂史研究』 are as follows. Che ilp'yŏn 제1편 Han'guk kŭndae ūmak ūi yŏksajŏk chŏpkŭn 韓國近代音樂의 歷史的 接近: 1. Kŭndae ūmaksa ūi ch'ongch'ejŏk sigak 近代音樂史의 總體의 視覺, 2. Han'guk kŭndae ūmaksa ūi han yangsang 韓國近代音樂史의 한 樣相, 3. Ilche chŏn'gi ūi ūmaksa yŏn'gu rŭl wihan siron 日帝前期의 音樂史研究를 위한 試論, 4. Hyŏnhaeng sibi chapka wa tan'ga ūi yŏksajŏk chomyŏng 現行 十二雜歌와 短歌의 歷史的 照明; Che ip'yŏn 제2편 Han'guk kŭndae ūmaksa ūi imo chŏmo 한국근대음악사의 이모저모: 1. Ilche ha omyŏngch'ang e ūihan p'ansori ūi chŏnsŭng yangsang 日帝下 五名唱에 의한 판소리의 傳承樣相, 2. 1920nyŏndae pangsong toen chŏnt'ong ūmak ūi kongyŏn yangsang 1920年代 방송된 傳統音樂의 公演樣相, 3. Ilche ch'ogi sanjo pangsong ūi han yangsang 日帝初期 散調 방송의 한 樣相, 4. Sinminyŏ kasu ūi ūmak sahoesajok chomyŏng 新民謠歌手의 音樂史會社的 照明, 5. Ilche ch'ogi chŏnt'ong ūmak ūi kallae yongŏron 日帝初期 傳統音樂의 갈래 用語論; Che samp'yŏn 제3편 Ilche kangjŏmgi p'ansori myŏngch'anron 일제강점기 판소리 명창론: 1. Kim Ch'ang-ryong myŏngch'ang ūi ūmak hwaltong e taehan munhŏnjŏk chŏmgŏm 金昌龍 명창의 음악활동에 대한 文獻의 點檢, 2. Ilche kangjŏmgi Yi Tong-paek myŏngch'anron 日帝強占期 李東伯 명창론, 3. Song Man-kap myŏngch'ang ūi ūmak hwaltong sogo 宋萬甲 명창의 음악활동 小考, 4. Ilche ttae yŏryu myŏngch'ang Kim So-hŭi ūi kongyŏn hwaltong 일제때 여류명창 金素姬의 공연활동; Che sap'yŏn 제4편 Ilche sidae chŏnt'ong kiagin ūi kongyŏn yangsang 일제시대 전통기악인의 공연양상: 1. Kŏmun'go myŏngin Paek Nak-jun kwa kayagŭm myŏngin Chŏng Nam-hŭi 거문고명인 白樂俊과 가야금명인 丁南希, 1. 1930nyŏndae yegi Kim Un-sŏn ūi kongyŏn hwaltong 1930年代 藝妓 金雲仙의 公演活動, 3. Chŏttae myŏngin Pak Chong-ki ūi ūmak hwaltong 첫대명인 朴鍾基의 음악활동, 4. Kyŏngsŏng pangsongguk e ch'uryŏnhan yegidŭl ūi kongyŏn hwaltong 京城放送局에 출연한 藝妓들의 공연활동.

3. Conclusion: For the Status of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Korean music department of SNU, established by Mandang and Unch'o in 1959, was the foundation for opening a new history for the field of Korean musicology in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It was also a crucial impulse for the establishment of Korean music departments of other colleges. The graduates of the Korean music department of SNU carried out active academic research, which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musicology. Because the Korean music department of SNU paved the way for the field of Korean musicology in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I believe it is not only my hope that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should open a new path for the growth of Korean musicology.

As climbing a huge mountain begins from a step, I realized that the basis of the academic studies can not be accomplished overnight. Even from now on, I hope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would initiate the development of the academic key industries and devote to the growth of Korean musicology. The project can be a tradition for the present second generation, who benefited from the achievements of the first generation, to pass on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 of Korean musicology of the twenty-first century totally depends on what kind of work and how the present musicologists will proceed their academic activities. Thus, the Director of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Oh Yongnok 오용록 [O Yong-nok], who took the position in 2002, will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Korean musicology. His idea that the domestic conference is as important a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should be noted. I think that the status and the role of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will be consolidated in the field of Korean musicology through domestic conferences that will be held with conference themes of various historical periods and subjects and through the Institute's efforts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 academic research.

To wrap up, should the Asian Music Institute realize the establishment of the academic foundation I discussed above, I strongly believe that one can expect the development of Korean musicolog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 wish the Institute continuous prosperity.